

12월 10일

12월 10일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로레토 순례지에서 성모 신심의 기원이 된 거룩한 집은 1294년 12월 9일과 10일 사이의 밤에 발견되었다고 1465년에 편찬된 연대기에서 전한다. 성모님의 이 거룩한 집은 지금도 그 언덕 위에서 있다. 이 순례지는 강생의 신비와 나자렛 성가정의 복음적 표양을 기억하게 해 준다. 많은 교황이 로레토 성모 순례지를 보호하였으며, 베네딕토 15세는 로레토의 성모님을 항공인들의 수호자로 선언하였다. 로레토의 성모 호칭 기도는 온 교회로 퍼져 나가고 있다.

성모 공통, 1679.

마침 기도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성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어,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뽑아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성모님의 겸손과 순종을 보고 기뻐하시며 저희를 구원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의 모범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 이 전례문은 2020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 총회의 승인을 거쳐 사도좌 추인(2020년 5월 8일, 경신성사성, Prot. N. 172/20)을 받았습니다.